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KEUN RO ZA.

19호 1962년

평양 근로자사 발행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19호 (212)
1962년 11월 (하)

차 례

사회주의 혁명과 자력 갱생

자력 갱생은 사회주의 혁명의 본질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정신이다

사회 혁명은 매개 나라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사이의 모순에 근원을 두고 있다.

보다 가동적인 생산력과 상대적으로 고정된 생산 관계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그것은 사회의 전진 운동 과정에서 더욱더 첨예화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낡은 생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그를 폐절하는 데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 간의 계급적 모순으로 나타난다. 계급 투쟁은 이 모순 해결의 방도이며 사회 혁명은 그의 최고 형태이다.

부르죠아 국가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 간의 모순이 그것이며, 이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의 근원을 이룬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근원을 포함한 모든 혁명의 근원이 바로 매개 나라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매개 나라들은 서로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일정한 련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제반 정세의 발전, 혁명적 영향과 떨어져서 이루어질 수 없다.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은 그 나라의 주체적 요인과 국제적 환경 조건과의 통일로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 안에서의 혁명의 주체적 요인이 잘 성숙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도 그 나라의 혁명 발전에 유리하게 전변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혁명의 주체적 요인이 성숙되였을 때 국제적 정세까지 좋으면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이와 결부하여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은 일제의 오랜 식민지 통치 아래서 자신들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여 왔으며, 투쟁 행정에서 반제 반봉건적 혁명 의식을 굳건히 하여 왔다. 그리고 이 투쟁 대렬의 앞장에는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서 있었으며, 그리하여 혁명의 골간 부대가 튼튼히 꾸려져 있었다.

한편 제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위대한 력사적 승리와 일제의 패망, 붉은 군대의 북반부로의 진주—이 모든 것은 우리 혁명 발전에 유리한 국제적 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붉은 군대와 더불어 해방의 위업을 이룩하면서 조국에 개선하였으며, 당을 창건하고 인민을 혁명 승리에로 인도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 아래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단기간 내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은 혁명에서 주체적 력량과 더불어 국제적 조건이 노는 역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확고히 준비되는 문제이다.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여 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국제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 반면에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확고히 준비되여 있는 조건에서는 국제적 정세가 어느 정도 불리하다 하더라도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

혁명의 시기, 속도, 방도, 심도—혁명의 모든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적 력량의 준비 정도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큐바에 있어서의 인민 혁명의 승리는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 주는 명확한 례증으로 된다.

물론 큐바 혁명의 승리도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큐바 혁명은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의 일환으로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큐바는 바로 제국주의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괴수인 미제의 코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접 미제의 손아귀에 들어 있던 나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실제상 혁명에 있어서 아주 곤난한 국제적 조건에 처하여 있었다는 측면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바 인민은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힘은 이미 불패의 것이다.

이상의 제반 사실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떨어지는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의 주체적 력량이다. 국제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의 혁명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놀 따름이다.

혁명은 수출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수입할 수도 없다.

혁명의 주인은 오직 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이며 그들의 향도자인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당과 대중은 자력 갱생의 원칙에 립각함으로써만 혁명에서의 주인다운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과거의 모든 혁명과 달리 하나의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바꾸어 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착취 형태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프로레타리아트 자신만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피압박 대중을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근본적인 력사적 변혁인 것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지를 비롯한 온갖 착취 계급과의 마지막 판가리 싸움이다. 착취자 계급은 이 싸움에서 력사에 있어 보지 못한 악랄성과 집요성으로써,

온갖 간악하고 음흉한 책략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 앞에 달려 든다.

이 전 세계사적인 사명 앞에서 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철저히 책임적이며, 착취자 계급과의 이 가렬한 싸움에서 오직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철저히 전투적이다.

자력 갱생—이것은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본질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이며 투쟁 원칙이다.

자력 갱생은 부르죠아지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자기의 주먹으로 적을 쓸어 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려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며; 풀과 물이 있는 모든 곳에서 살며 싸우려는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이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체의 힘으로 찾아 내며 만들어 내려는 창조적 정신이며, 도달된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사상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5개 성상을 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거의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세계 제국주의의 강대한 적 일제와 대항하여 싸웠으며, 승리하였으며, 끝내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그들 승리의 요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력 갱생의 투쟁 정신이며, 원칙이였다.

그들은 혁명 실천을 통하여 자력 갱생이, 전진 도상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천리마 운동을 창조한 영웅적 인민으로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력 갱생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우리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필수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우리는 자력 갱생의 사상으로 살고 투쟁함으로써만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으며,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을 앞당길 수 있다.

자력 갱생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 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이며 우리 인민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합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우리의 온 강토 우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함으로써만 자기의 숭고한 민족적 임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북반부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에 확고히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함으로써 혁명의 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그 기초 우에 조국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자력 갱생—이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다.

경제 건설 분야에서 자력 갱생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우선 나라에 있는 모든 부원과 가능성,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함으로써 가능한 최대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능성과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요구한다. 그러자면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더 많게 하면서 다방면적이며,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되고,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요구는 우리 당의 경제 건설 로선에 전면적으로 체현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훌륭하게 구현되였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중앙 공업과 함께 어디에나 일어 선 지방 공업은 우리 나라의 산과 들, 바다와 강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혁명 승리를 위해 바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생산력을 부단하고 급속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의 공업은 경제 부문 간의 균형들을 보장하면서 생산의 천리마적 속도를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하여 그렇게도 혹심하게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 문제를 단시일 내에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부단한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이제 와서 우리는 당당히 제발로 걸어 갈 수 있게 되였으며 혁명에서 어떠한 곤난과 시련이 닥쳐 온다 하더라도 그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였다. 남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에서 더욱더 삶과 구원의 믿음직한 등대를 보며 투쟁의 힘을 얻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강력한 보루로 전변되였다.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할 것인바 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력 갱생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다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자체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은 또한 국제 혁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실제의 국제주의는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즉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 운동과 혁명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며, 례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투쟁과 이와 같은 로선을, 오직 이 한 로선만을 지지하는(선전으로써, 동정으로써 또 물질적으로) 것이다》(전집, 제 24권, 71페지). 다르게는 될 수 없다.

《오직 이 한 로선만》을 우리는 확고하고 견결하게 지지하며, 우리 투쟁의 기치로서 들고 나가며, 계속 고창할 것이다.

우리가 조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선 혁명의 민족적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길이다. 동시에 이것은 국제 혁명의 한 고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불패의 보루로 전환시킴으로써 또한 우리가 세계 혁명 앞에 지닌 국제주의적 임무를 가장 옳게 수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이 가르치는 혁명에서의 가장 빠른 길—자력 갱생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는 가장 짧은 력사적 기간에 나라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실제적으로,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짐으로써, 완전히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형제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와 유무 상통을 할 수 있게 되였다.

아무 것도 없이는 유무 상통이란 성립되지 않는다. 더우기나 국제적 교역에 있어서 잘 만들지도 못하고 상당한 보유량도 없는 제품을 가지고서는 남과 같이 교역하자고 당당하게 진출할 도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의 경제적 교역은 그에 응당한 물질적 안받침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 성과적으로 협조하며 국제적 분업을 잘 할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모두가 자체의 힘으로 자국의 경제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함으로써만 혁명에 있어서 선전의 령역과 더불어 물질적 령역에 이르기까지의 호상 보다 두터운 협조의 손'길을 뻐쳐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조를 받는 나라에 있어서는, 받고 있는 국제적 협조를 최대한으로, 자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바칠 때 그것은 국제주의적인 성의에 대한 응당한 보답으로 된다.

국제 분업에 대하여 말할 때도, 이것은 우선 매개 나라의 경제 건설을 전제로 하며 그 다양한 련계는, 바로 매개 나라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이 조건은 또한 국제적 분업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매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더욱 자극하며 촉진하자는 데 있는 것만큼 더욱더 요구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체로서 유용하게 리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지 않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류, 분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지장을 주었을 것이며, 형제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계속 큰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서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약한 채로 남아 있다면 형제 국가들은 우리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더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력 갱생의 원칙에 서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실현은 전적으로 정당하였으며 철저하게 국제주의적 립장이였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악전 고투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형제 국가들의 부담을 현저히 덜어 줄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형제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보답이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우리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이리하여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매개 나라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호상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통일 단결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궐기한 모든 나라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세계 혁명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자력 갱생의 붉은 기치를 완강히 들어 쥐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리 석 심

우리 인민은 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에서 넘겨 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켰으며 나아가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자체의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아 놓았다.

이 빛나는 성과는 오로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된 로선이 관철되고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에는 자력 갱생의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가장 급속히 추진시키려는 로선이며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가장 급속히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장 빨리, 가장 훌륭히 축성할 수 있는 곧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행정에서 남김 없이 확증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제 1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축적된 귀중한 경험과 빛나는 성과들을 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분석 개괄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력 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로선을 견결히 실현하여 나갈 데 대한 당과 정부의 확고 부동한 방침과 결의를 천명하였다.

1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우리 인민이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며 민족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시종일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로선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락후성을 하루 속히

퇴치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자력 갱생—이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확고하게 견지해 온 원칙, 물이 있고 풀이 나고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살았고 원쑤를 싸워 이긴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이다.

김 일성 동지는 자력 갱생의 정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적 혁명 기풍과 혁명 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 줄 알아야 합니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체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제발로 빨리 전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자주적 경제를 건설함을 의미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내용과 기본 특징들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과업으로 삼았다.

생산 수단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기본상 자체로서 충족시킴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적인 발전, 독립한 인민으로서의 경제 생활이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더우기 과거 사회로부터 극히 락후하고 편파한 경제를 물려 받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가장 긴절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기에 우리 나라 경제는 기형적인 편파성과 혹심한 기술적 락후성을 띠고 있었으며 해방 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조국이 량단된 결과 나라의 경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해방 전에 우리 나라 중공업은 일제를 위한 일부 원료,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문들만을 가졌고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 부문들이 극히 미약하게 발전되여 있었다. 1944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6%였으며 가장 간단한 기계 설비들 지어는 부속품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다. 또한 1944년에 조선에서 생산된 선철 생산을 100으로 할 때

강철 생산은 30, 강재 생산은 22라는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공업은 극히 락후한 형편에 있었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남조선에 있었다. 1940년 현재 우리 나라 방직 공업 생산액의 83.2%, 식료품 공업의 61.1%가 남조선에 있었다. 그리하여 북반부에서는 1944년에 137만 8,000메터의 직물이 생산된 데 불과하였다. 조국의 량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농업 지대인 남반부와 분리된 북조선은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지대로서 해방 후 인민의 식량 문제 해결이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의 가장 긴절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축성하는 것은 독립한 나라의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를 갖추는 사활적 과업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1947년 초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만》 되며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집, 1954년 판, 제 1권, 438페지)라고 말씀하였다.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상치하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정세에서 자립적 경제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는 것은 북반부 민주 기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하며 우리 혁명의 당면 최대의 과업인 조국 통일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날카롭게 제기되였다.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기본상 자체로서 충족시킨다는 것은 나라의 정치적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높은 경제 발전 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필요하였다.

경제 건설의 성과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생산 수단들을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 경제의 균형들을 주동적으로 그리고 기동성 있게 조절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자립적인 경제 토대가 있는 경우에 가장 훌륭히 보장될 수 있다.

인민 생활에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소비품들, 특히 식량을 국내 생산으로 보장함이 없이는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도, 성과적인 경제 건설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소비품들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되며 외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민 생활 향상을 보장하는 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생산 수단과 인민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가 자립적인 부문 구조를 가져야 하며 현대적인 기술 발전 수준에 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요구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생산물을 낼 수 있게 해당한 부문들이 다면적으로 발전되고 재생산 과정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문들 간에 유기적인 생산적 련계가 조성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가 형성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 발전의 안전성, 견실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가 축성되여야 하며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됨으로써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달성하고 응당한 생산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가 이러한 자립적 구조를 가져야만 자체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민족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국내의 모든 자연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경제 건설의 성과적 추진은 자체의 부원들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나라의 자원을 적극 개발 리용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자립적인 경제 구조는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 로선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면적에 비해서 세계에서도 그 류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가진 경제로써는 그것들을 제대로 개발 리용할 수 없었으며 채취되는 원료들도 다양한 완제품으로 가공할 수 없었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자체의 풍부한 자원들을 백방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하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민족 경제의 발전은 가장 절실한 의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해방 후 우리 인민이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나, 하루 바삐 발전된 경제를 가지기 위하여서나 다 같이 절실히 요구되였으며 또한 나라의 풍부한 자원, 편파하나마 우리 나라에 있던 일정한 중공업 토대, 형제 국가 인민들의 지원 등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은 오직 자력 갱생의 혁명적 정신을 견지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는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일찌기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앞날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구상하였으며 해방 후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 유일하게 정확한 경제 건설 방침을 일관하여 견지하였던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추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 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기여하는 견지로 보아서도 가장 정당한 길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

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할 수 있으며 이 나라들과의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과거에 락후했고 또한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있는 우리 나라가 제 힘으로 살아 나가고 혁명을 추진시킬 수 있는 자체의 경제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되며 또한 그것은 형제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훌륭히 협조할 수 있게 한다.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가 형제 나라들과 유무 상통하기 위하여서는 응당한 능력과 좋은 것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대외적인 경제적 련계를 위하여 리용되는 생산물은 완제품들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원료, 반제품의 경우에도 매개 나라에 자주적이고 다면적으로 발전된 민족 경제가 있는 조건 하에서만 더욱 대량적으로 그리고 더욱 훌륭히 생산될 수 있다.

과거에 일제를 위한 원료 반제품 생산에만 치중되였던 경제를 물려 받은 우리 나라는 해방 후 일부 채취 부문 산물들을 국제적 교류에 내놓을 수 있었을 뿐이였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예속성을 띤 경제의 산물로서 응당한 가공을 거치지 못했고 그 량이 제한되여 있었다. 반면에 민족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기계 설비들을 비롯한 더욱 많은 생산물들을 수입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적 협조와 경제 교류의 발전, 수출입 균형의 개선을 위하여서도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기초 우에서 경제 교류에 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 생산량을 계속 증대시켜야 하였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국제 분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으며 통일되여 있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리적인 국제 분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형제 나라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 분업의 옳은 리용은 다면적이고 자주적인 민족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에 기초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장성시키면서 형제 나라들 간의 경제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발전에서 다면적, 종합적인 경제 체계의 우월성과 함께 국제 분업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리득을 충분히 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견지로 보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기여하는 견지로 보나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우리의 높은 전진 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이였다.

그러나 자체의 가능성을 최대 한도로 동원 리용하여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급속한 전진 도상에서 제기되는 난관들을 극복 타개하는 견결한 투쟁을 예견한 경제 건설 방침이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족한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길 우에는 자금 문제, 물질-기술적 조건의 보장, 당면한 인민 생활의 해결 문제 등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었다. 우리의 난관은 또한 내부에서 우리 당의 이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을 반대하여 나선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관련되여 있었다.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어려운 조건과 당면한 인민 생활 문제를 구실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기본으로 되는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의 복구 건설을 반대하였다.

생활은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로선의 제기와 그의 관철이 단순한 경제 건설의 합리적 방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혁명에 대한 립장, 모든 것을 다하여 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혁명에 대한 태도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다하여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추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공산주의적 혁명 정신으로 하여 이 로선은 확고히 견지되였던 것이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당이 심혈을 기울여 실현하여 온 문제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지난날 우리 학계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응당한 수준에서 전개되지 못하였다. 우리 앞에는 이 문제에 관한 당 정책을 보다 심오히 연구하고 전개하여야 할 영예롭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2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로선은 당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후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최단 기간 내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실현은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되였다.

당은 전후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시키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과업들을 정확히 실현시켜 나갔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축성을 위하여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는 것을 선차적 임무로 제기하였으며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튼튼한 중공업 기지의 축성, 경공업 기지의 창설, 농촌 경리의 다각적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부문들의 유기적인 련계를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경제 건설에서 나라의 부원을 적극 개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자체의 공고한 원료 및 연료 동력 기지를 축성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으며

나라의 자원에 적응하게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우리에게 결핍되여 있거나 부족한 것은 나라에 현존하는 부원들을 리용하여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물질적 지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민족 기술 간부의 양성에 큰 주목을 돌렸으며 자체의 기술 경제 일'군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또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발전시키면서 생산 수단 및 소비재들에 대한 자체의 수요에 적응하게 부문 구조를 조성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축성하는 데 우선 력량을 집중하였다.

우리 당이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단계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매 시기 매 단계의 절실한 과업과 현실적인 가능성들에 부합되게 중심 고리를 옳게 포착한 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옳은 순차로, 력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건설할 수 있게 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성과적 추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우리 당이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제고시켰으며 일체 예비와 가능성들을 제때에 능숙하게 동원 리용한 것이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의 가장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추진시킬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자립적 경제 토대의 축성을 위한 가능성들을 적극 찾아 내고 조성하며 그것을 경제 건설의 위업에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였기 때문이였다.

우리 당은 전후 그렇게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자립적 경제 토대 축성의 기본으로 되는 중공업 기지를 복구 확장하는 데 자금의 많은 부분을 돌렸으며 형제 나라들의 원조도 그의 약 4분의 3을 경제 건설을 위한 생산 수단들의 획득에 리용하였다.

난관이 중첩된 조건에서 자체의 힘으로 기술적 개건의 과업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5개년 계획의 첫 시기에도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생산 내부 예비들을 동원 리용하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을 조직 전개하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천리마 운동에 불러 일으킴으로써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축성의 과업을 급속히 추진시켰다.

우리 당은 전면적 기술 혁명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여 나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족한 것을 찾아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면서 자립적 공업 체계의 확립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근로 대중의 비상한 로력적 열의가 결합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이미 3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적으로 축성되였으며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것이 튼튼히 다져졌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가 축성되였으며 선진적 기술에 기초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농촌 경리가 있다. 인민 경제의 식민지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은 완전히 퇴치되고 우리 나라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 부문별 총 생산액의 구성과 농업 총 생산액의 부문별 구성은 각각 다음과 같이 변동되였다.

년 도	1944년	1949년	1956년	1960년
총 계	100	100	100	100
발전 공업	1.4	1.6	0.7	0.3
연료 공업	3.8	4.1	1.8	1.3
광석 채굴업	15.7	8.1	6.1	4.0
야금 공업	13.3	11.0	8.6	6.8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1.6	8.1	17.3	21.3
화학 공업	10.1	9.5	4.7	5.4
의약품 공업	0.2	1.0	1.5	4.0
건재 공업	2.5	2.5	4.8	5.9
방직 공업	6.0	11.4	18.4	16.8

년 도	농업 총생산액	농산 부문	축산 부문	잠업 부문	기 타
1946년	100	90.8	8.4	0.6	0.2
1953년	100	89.0	9.7	0.9	0.4
1956년	100	87.0	11.4	1.1	0.5
1960년	100	77.2	17.3	2.3	3.2

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의하여 공업 및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벌써 1960년에 71%에 달하였으며 그리하여 인민 경제에서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도 식량뿐만 아니라 공업에 더욱 다양한 농산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다각적 경리로 발전되였다.

채취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가공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부족한 원료들을 인공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의 시책들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공업은 튼튼한 자체의 원료 기지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민족 기술 간부의 대렬은 16만 여명으로 확대되여 나라의 모든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우리의 기술자, 전문가들에 의하여 훌륭히 운영되고 있다.

3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 로선의 생활력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악전 고투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형제 국가들의 부담을 현저히 덜어 줄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형제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보답이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우리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류례 드문 급속한 장성 속도에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업 총 생산액은 전후 기간(1954~1960년)에 년 평균 39%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1961년에 우리 나라 공업은 해방 후 1946년부터 1955년에까지의 10년 간에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공업 제품을 단 한 해 동안에 생산하였다.

경제 건설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과거에 락후했던 부문들이 계속 급속히 발전하였다. 1954~1960년 간에 우리 나라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15배로 장성하였으며 1960년의 그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근 100배에 달하였다. 방직 공업은 1954~1960년 간에 7배로 그 생산을 확대하여 1960년에 1억 9천만 메터의 각종 직물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해방 전의 135배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1946년에 189만 톤, 1953년에 232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다면 1960년에는 380만 3,000톤, 1961년에는 483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농업 총 생산액은 1954~1960년 간에 195%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는 자립적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이 관철되면서 인민 경제의 자립성이 부단히 강화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축성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기계 설비들로써 기술적 개건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건설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된 결과 5개년 계획 기간에 자체의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기술적 개건의 과업을 촉진시켰으며 공업 및 농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켰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축성은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천리마 운동이 일어 나고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지반을 마련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된 결과 우리는 오늘날 자체의 중공업 기지, 특히 강력한 기계 제작 공업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기계 설비들로써 발전소, 야금 공장, 화학 공장을 비롯한 현대적 대규모 기업소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였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이미 년산 25만 톤의 능력을 가진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 강선 제강소의 년산 20만 톤 능력의 전기로 제강 직장, 년산 30만 톤 능력의 선재 압연 직장, 년산 6천 톤 능력의 염화 비닐 공장, 년산 2만 톤 능력의 비날론 공장 등 대규모 공장들을 련이어 건설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전면적인 기술적 개건에서 제기되는 더욱 방대한 과업들을 능히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축성은 또한 인민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과업들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경제 건설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전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건설에서 가장 큰 인민 경제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 하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유기 화학 공업의 비약적 발전 등의 실례가 이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중공업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이 뜨락또르, 화물 자동차, 전동기, 뽐프, 각종 화학 설비 등을 생산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만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경공업 원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하게 제기된 이 과업들의 적시적인 해결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만일 협애하게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수익성》, 《원가 수준》만 따지면서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와 화학 섬유 생산 등에서 달성되고 있는 빛나는 성과들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인민 경제의 급속하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 축성은 자체의 소비품 생산 장성에 의하여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국내산 상품으로써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어렵던 식량 문제도 이미 해결되였고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물질 기술적 조건을 가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오직 자립적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모든 시책들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 나라였던 우리 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믿음직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성과적인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북반부에서 자립적 경제 토대가 확고히 축성된 사실은 남반부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이 나아갈 길이 어느 길이며 어느 사회 제도가 진실로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물적으로 명백히 보여 주고 있으며 그들을 반미 구국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우리는 남반부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시키며 우리 인민을 보다 휘황한 미래에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힘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 축성은 형제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 추진되는 행정에서 우리 나라의 대외 무역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대외 무역 총액은 1954~1960년 간에 4.4배, 그 중 수

출은 4.9배로 장성하였다. 다면적이고 자주적인 민족 경제가 발전하는 데 따라 대외 무역의 구조는 급속히 개선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수출품 중에서 각종 완제품들의 비중이 제고되고 그 품종이 더욱 다양하게 되였다. 1953년에 우리 나라 수출품 중에서 기계 설비의 비중이 0.4%, 식료 및 기호품의 비중이 0.1%에 지나지 않았다면 1960년에 그것들의 비중은 각각 5.3% 및 6.3%로 제고되였다. 1953년에 광물류의 비중이 81.8%, 흑색 및 유색 금속의 비중이 9.0%였다면 1960년에는 그것들의 비중이 각각 12.8% 및 43.7%로 변동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고 우리 인민이 자체의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혁명을 추진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사회주의 동방 보루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가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급속히 전변된 사실은 또한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나라, 아직도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 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 있다.

우리 인민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이며 통일되고 독립된, 부강한 조선을 건설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장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위대한 민족적 강령인 7개년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의 완수에서도 당은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관철시켜 자립적 공업 체계를 확립하고 농촌 경리를 새로운 수준에서 더욱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급속히 추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우리는 앞으로도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우리 인민은 튼튼히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면서 앞으로도 당의 이 정확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나라의 공업화를 철저히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조국 통일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

강 영 탁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제 1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서 분렬된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시킬 데 대한 3천만 조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그 실현 방침을 재천명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침의 재천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위업 성취의 길을 더욱 명확히 밝혀 주고있으며 그들을 필승 불패의 신심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현명한 방침은 그의 론박할 수 없는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체 인민의 기치로 되고 있다.

이 방침의 론리적 힘과 생활력은 그것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의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국 통일에 대한 조선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데 있다.

⁂ ⁂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분렬된 조국을 무력으로써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그리고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제 원칙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연설에서 이러한 제 원칙들의 정당성을 강한 생활의 론리로써 증명하였으며 이 원칙을 떠난 일체 반동적이며 비현실적인 궤변과 망상을 철저히 론박하고 그 본질을 여지 없이 폭로하였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조국의 통일—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존립한 첫날부터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립장이며 정책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통일의 두 가지 전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만일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 난다면 불가불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소탕함으로써 조국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도를 원하지 않으며 첫째 전도, 즉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념원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선집 제 4권, 343~344페지)라고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금번 연설에서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립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써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 우리 당과 정부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조국의 통일을 확고 부동한 시정 방침으로 내세우고 그를 위하여 투쟁하는가?

그것은 오직 평화적 통일만이 조선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에 부합되며 또 그러한 방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현실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조국의 분렬도, 민족 내부의 불화도, 동족 상쟁도 원치 않는다. 왜냐 하면 그것은 민족 최대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비록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국이 분렬되고 민족 내부에 일시적으로 불화와 불신임이 조성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평화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가 존재하는 이상 무엇 때문에 동족 상쟁으로 인민의 귀중한 로동의 열매를 탕진하는 범죄적인 길을 택하겠는가!

오늘 동족 상쟁의 전쟁으로써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은 미제에게 충실히 복무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원치 않는 민족 반역자들 뿐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원래 우리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조선을 분렬시켜 동족간에서로 싸우게 하며 그것을 기화로 하여 전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시키려 하고 있다.

적들은 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을 리용하여 《북진 통일》이요, 《멸공 통일》이요, 《승공 통일》이요 하는 나발을 불면서 동족 상쟁의 범죄적이며 침략적인 전쟁 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그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허황한 것이며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현될 가망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렬시키려는 극히 유해로운 생각》이다.

적들은 무력으로써 공산주의를 소멸하며 우리 공화국을 정복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파탄되고 말았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는 40년 간이나 공산주의를 말살한다고 하면서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갖은 만행을 다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매국 역적 리 승만이 멸공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미제의 힘을 빌어 동족 상쟁까지 도발하여 인민의 수 많은 인명 재산을 탕진하면서 북진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 소멸된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이며 멸망한 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아니라 리 승만 역도였다.

오늘 박 정희 도당도 여지 없이 파산당한 《멸공 통일론》에 매여 달려 《승공을 위한 실력 배양》을 고창하고 있으나 차례질 것은 선행자의 운명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다.

김 일성 동지는 이번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자주성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립장을 재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며 오직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전 조선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내여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립장은 문제의 민족적인 성격과 조선 인민이 당당하게 향유하고 있는 민족 자결의 숭고한 권리와 조선 인민의 실제적인 자주 능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통일 문제의 민족적 성격, 그 내정적 성격을 주장하며 강조한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가진 단일한 국가, 단일한 민족을 두 부분으로 분렬한 인공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련계와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인 것만큼 어떠한 국제적인 분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민족적 성격의 문제이다.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자들만이 이 엄연한 진실을 무시하여 보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것일진대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국제적 련합도 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조선 인민 자신의 힘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론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의 통일 문제에서 력사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족 자결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천만번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 문제를 그들의 침략 도구로 화한 유엔에 끌고 가서 비법적인 론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의 주구들은 자기 상전의 사촉 하에 소위 《유엔 감시 하의 통일》이라는 반역적인 주장을 내놓고 문제를 미제 날강도들이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맡기며 조선에 미국 군대의 영원한 주둔을 애걸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 인민에 대한 미제의 란폭한 침략적 행동이며, 그 주구들의 참을 수 없는 매족 행동이다.

김 일성 동지가 정당하게 주장한 바와 같이 조선 문제는 뉴욕이나 워싱톤에서 외국 사람들이 론의할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서울에서 조선 사람끼리 토의하여야 한다.

더우기 유엔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의 본래의 사명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에 대하여 그가 감행한 적대적 침략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한 권위의 상실과 조선 인민과의 교전 일방의 지위에로 전락된 것으로 하여 조선 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

동서 여러 나라의 력사에 언급하지 않고 다만 우리 나라의 근세사와 특히 해방 후 남조선의 최근세사를 론하더라도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말하여 주고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조선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시대는 민족 해방의 시대이다. 조선 인민이 독립되고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세에서 완전히 벗어 나야 한다.

조선 인민은 능히 외세에서 벗어 나 자기 힘으로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가 있으며,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받고 있으며 유구한 문화 전통과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재능 있는 민족이다.

해방 후 북조선에 이룩된 새 사회, 새 생활은 조선 인민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력력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또한 이번 연설에서 조국을 통일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재강조하시였다.

문제가 나라의 통일에 관한 것인 것만큼 현실적으로 남북 조선에 각기 판이한 사상 체계와 사회 제도의 지배가 확립된 조건에서 어떠한 사상이 접수되며 어떠한 사회 정치 제도가 통일적으로 확립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당과 정부는 김 일성 동지가 무차 천명한 바와 같이 《일체의 선진적 사상과 사회 제도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으며 그것은 인민들 자신이 자기의 자유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원리를 따라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의 리상의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남조선 인민 자신에 속한 권리이며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공산화》를 겁내서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격이며, 민중의 의사에 대한 역행이며 전 민족의 사활적 리익에 대한 배반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들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용공 분자》라는 딱지를 붙여 일체 진보적 세력을 가혹하게 처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반역적인 소행의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조국의 통일 문제가 상술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립장과 원칙들 즉 평화적으로 또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어떠한 로정이 요구되는가?

※ ※

김 일성 동지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전 행정의 순차와 매 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가함으로써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침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더욱 뚜렷이 설득력 있게 밝혀 놓았다.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이 강점 당하였으며 남북에 판이한 두 사회 정치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리간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 조선 인민들간에 호상 신임과 리해가 부족한 것 등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는 그 해결에서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제 조건을 타산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통일 위업의 달성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일련의 중간 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셨다.

조국 통일 문제에서 선결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이다.

미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악랄한 교살자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정책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이다.

그들은 우리 조국의 남녘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그것을 교두보로 전 조선과 아세아를 삼킬 흉계 밑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백방으로 방해하며 부단히 긴장 상태를 격화시켜 조선에서 평화를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군사 정변》 후에만 하여도 남조선에 방대한 군사력을 집결시키면서 원자 무기와 유도 무기, 초음속 비행기, 대형 함선 등을 포함한 각종 신형 무기들을 대량 반입하는 한편 최근 1년 간에 무려 78회에 걸쳐 미국의 호전 분자들이 남조선에 드나 들면서 도합 66회에 달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적인 작전 훈련과 3,000여 건의 군사적 도발을 조작하며 전쟁 소동을 일으켰다.

미제는 가장 큰 국제적 략탈자이며 인간 도살자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제 침략 군대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사회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대중적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그들은 17년 간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실로 수백억 딸라 이상의 재물을 략탈하였으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우리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매일과 같이 수천 수만 명의 우리의 남조선 형제들이 침략자들에 의하여 모욕 당하며 학살 당하고 있다.

이러한 흉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군대를 철거시킴이 없이는 남조선 인민들이 한시도 자기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조국 통일의 민족적 념원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킬 하등의 근거도, 구실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이 떠들고 있는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이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병풍이며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구실이다.

조선 인민은 누구도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허위 술책에 기만 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기만 당하여서는 안된다.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가일층 완화시키며 남북 조선 간에 호상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서 남북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이하로 축소시킬 데 대하여 루차 제의하였으며, 김 일성 동지는 금번 또다시 이러한 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평화 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제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떠벌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남침》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증거로 된다.

이것으로 하여 적들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자기들의 기만 술책의 구실을 상실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러한 협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다른 구실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론리는 그들을 조소한다.

사실상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나라들 간에도 선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하물며 한 민족 한 형제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반목을 없애고 살지 못할 근거가 어데 있겠는가.

오직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여 70만의 현역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안받침하여 100만의 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방대한 군사력은 오직 그들의 침략 정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놀고 있을 뿐이며 민족 보위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만일 이 군대를 10만 이하로 축소하게 된다면 개략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정권》의 년간 예산 총액의 약 6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금액은 실로 남조선 화폐로 470억 원에 달한다.

이것을 남조선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돌린다고 치면 1년 간에만도 15만 키로와트의 수력 발전소와 년산 100만 톤의 화학 비료 공장을 각각 한 개씩 건설할 수 있는 외에 약 20만 정보의 논을 몽리할 수 있는 관개 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빈농의 고리 부채를 완전히 청산해 줄 수 있으며, 인민들의 조세 부담의 50%를 감면하며, 20개의 교실을 갖춘 국민 학교를 1,500 여개나 지어 줄 수 있다.

만일 이렇게 진전된다면 자금 조달 계획의 파탄으로 《반년도 못 되여 막다른 골목에 빠진》 군사 《정권》의 《5개년 계획》도 그 실현이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상의 모든 조치들을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 걸음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절박한 문제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남조선의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태, 만회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여 있다.

군사 《정권》이 소위 《자립 경제》 건설의 구호 하에 들고 나왔던 《5개년 계획》은 두드리면 소리 높은 《빈 깡통》이였다는 것이 여지 없이 드러났다.

남조선 공업은 《재건》은 커녕 전반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생산은 계속 감소되고 중 소 기업가들은 거의 몰락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공장 시설의 가동률은 군사 《정권》 수립 이전의 5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저락되였으며 식료품, 방직, 고무 및 피혁 등 일련의 주요 부문들에서는 생산이 20~30%나 감소되였다.

공장들은 더욱 령세화되여 종업원 50명 미만의 공장들이 전체 공장 수의 94.5%를 차지하고 있다.

중 소 기업들은 심각한 운영난과 《정비》 선풍으로 이미 금년 초에 1,300 여개나 파산당하였고 지난 6월에는 건설 부문에서만도 800 여개나 몰락되였다.

공업 뿐만 아니라 남조선 농촌 경리도 더욱 한심한바 금년도에는 대흉작까지 들어 농촌의 피폐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이미 10 여만 정보의 농토를 군용지로 빼앗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재로 10 여만 정보의 논밭이 파괴되였다.

알곡 생산량은 《풍년》이라는 작년도에도 일제 시기보다 20% 이상이나 감소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곡이 작년도보다 약 30%나 감소되고 추곡도 근 20%의 감소가 예견되고 있어 래년도 식량 부족량은 600만 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박 정희 도당이 내 건 《중농 정책》도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공념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다.

경제의 이러한 파탄과 아울러 화페는 《종이보다 더 흔하게》 란발되여 《정변》 후 통화는 60%나 팽창되고 물가는 20%나 등귀하여 첨예한 인프레 위기에서 경제적 혼란은 절정에 달하였다.

경제적 총 파탄의 후과는 인민 생활에 직접적인 공세를 가하였다.

인민 소득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인구 1인당 60딸라에 지나지 않는데 실업자는 군사 《정권》 수립 후 50만이나 더 증가되여 가동할 수 있는 로동 인구의 60%인 600 여만 명이 실업 및 반 실업 상태에 있다.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군사 정변》 후 20%나 저하되여 생계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저임금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로동자의 임금에 비하여도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들의 소비 수준도 10%나 저하되였으며 그들의 60%에 해당하는 140만 호는 만성적 절량 상태에 있고 그들의 90%는 고리채에 얽매여 있다.

남조선의 총 세대수의 근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만 세대가 주택이 없이 살고 있으며 서울에서만도 5만 여 세대가 토굴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생활고로 자살자와 아사자가 거리와 농촌에서 급격히 늘어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대한 민국》의 《국위를 크게 선양》 시켰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를 《세계에서도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부

르며 《현재는 비참하며 장래는 보다 암담한 나라》로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던져 준 《원조》와 《은전》의 열매이다.

남조선의 우리 형제들은 이러한 처참하고 암담한 상태에서 하루 속히 구원되여야 하며, 이로부터 구원되는 길은 오직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무차 제기한 남북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북이 힘을 합치고 북조선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의 풍부한 국내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능히 자기 힘으로 살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북반부에는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가 건설되여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조선의 경제 토대는 전 조선의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이 토대에 기초하여 남조선 경제의 복구 발전에 지원을 줄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은 이미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8차 회의에서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제시한 바 있다.

우리 당 제 4차 대회가 제시한 7개년 계획이 실행되면 이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조선 간에 경제적 협조와 교류가 실현된다면 파괴된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은 복구될 것이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와 같이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올 유일한 길은 남북 조선 대표들로 경제 위원회를 조직하고 남북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족 내부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침략 자본에 의거하여 출로를 찾으려는 것은 망상이며 매국 배족의 행위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또한 남조선의 17년간의 력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사 오적의 현대판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추악하게 야합하면서 그 독점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지금 도꾜와 워싱톤과 서울에서는 상전과 주구들이 드나들면서 《한국이라는 매대》에 대한 흥정판이 벌려지고 있다. 아마도 제국주의 쇠사슬에 목을 매운 박 정희나 김 종필이 같은 세빠트들에게는 《매대》의 주인이 많으면 빵부스레기라도 많이 떨어지려니 하는 본능적인 감각은 있으나 《이붓애비 여럿 섬기기는 바쁘다》는 리성적인 판단은 없는 것 같으며 또 당연히 없을 것이다.

물론 주구들은 상전을 따라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민들은 우리 당을 따르고 있으며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호상 협조가 실현되면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조치로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이미 제의한 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치 않는 남조선의 일부 위정자들은 련방제에 대한 우리의 제안의 합리성을 훼방하기 위하여 《련방제는 공산주의에 의하여 남조선이 먹힐 위험성이 있다》느니, 《련방제는 형식에 불과하다》느니, 《련방제는 남북을 영원히 분렬시키려는 책략이라》는 등의 비방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방은 하등의 론거도 없다.

우선 련방제는 남북 조선의 현존 사회 정치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며 남북은 호상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으며, 쌍방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련방 기구는 남북 조선 두 정부 대표들로 구성하며 그는 오직 민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만을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바 이 련방은 단일한 민족이 일시적으로 분렬된 두 부분을 결합하는 것인만큼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의 통일적인 발전, 국내 자원의 공동 개발, 대외적 분야에로의 공동 진출 등 민족 공동으로 해결할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련방제 일반이 그러한 것과 같이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는 데 극히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기 위한 과도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련방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제반 현실적 조건과 민족의 리익을 면밀하게 타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 간의 호상 리해와 접촉이 촉진되며, 정치 경제적 련계가 강화되고 민족적 화목의 분위기가 더욱 충분히 조성될 것이며 민족 최고의 과업인 나라의 완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북 자유 총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 서게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전 조선 자유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일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 남조선 정치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조국 통일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국 중앙 정보국에 의하여 조작된 현 군사 《정권》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2,000여 건의 악법을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감행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마저 박탈하였다.

그들은 1년 6개월이나 계엄령을 지속하면서 283개의 정당 사회 단체를 해산시켰으며 10만 여명에 달하는 애국적 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글을 쓰는 출판 보도 기관들은 강제 폐쇄하였는바 그 수는 1,848개에 달한다.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이러한 파쑈적 폭압 조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적 선거란, 다시 말하면 인민들의 자유 의사의 표시란 있을 수 없다.

남북 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남북 전 지역을 통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의 완전한 보장, 이것만이 민주주의적인, 자유로운 총 선거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오직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된 전 조선 중앙 정부를 수립함으로써만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확증한 가장 리상적이며 선진적인 사회 정치 제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며, 민족의 불행인 나라와 민족 분렬의 비극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자주 통일의 승리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모든 행정은 그것이 심히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의 행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행정은 점차 낮은 데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면서 나라의 완전 통일을 이룩하는 단계에까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전투적인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　　*

금번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재천명된 조국 통일 방침은 이미 력사적인 사변들에 의하여 그 생활력이 검증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개 제안들은 그때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적인 찬동을 받았으며 매 시기마다 조국 통일의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동시에 매개 제안들은 원쑤들에게 치명적인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 제 3차 대회의 평화 통일 선언은 매국 역적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은 남조선 인민들의 4.19 인민 봉기를 준비시켰으며, 8.15 해방 15주년 경축 보고에서 제기한 김 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의 강령적 방안과 그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8차 회의 제안들은 4.19에 의하여 격동된 남조선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 쥐고 조국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우리의 통일 방안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의 문장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1961년 1월 2일 부 남조선 《부산 일보》).

이리하여 결과로는 장 면 정권의 운명이 결정 지어졌으며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걷잡을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게 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 제 4차 대회 선언과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11차 회의의 제안은 군사 파쑈 테로 통치 하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혁명적 기운의 성숙에 거대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은 삼엄한 계엄령 하에서도 공개적인 반미 투쟁에 어깨 겯고 일떠서며, 공개적인 신문 지상에 《미군 만행 백서》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동시에 《군사 정변》 후 일시 위압 당하였던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바 남조선의 한 신문사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 의하더라도 《해결을 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서 남북 통일 문제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

《남북이 량단된지도 벌써 십수년 어느 때고 먼날에는 남북 통일이 되여야 한다는 이런 흐린 사고 방식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꼭 되여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 밑에 분투》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며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토가 량단된 곳에서는 무수한 생명과 피를 흘렸습니다》(1962년 5월 10일 남조선 《령남 일보》에 기고한 글).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바로 이렇게 절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 파쑈 통치에 대한 반항 기세도 표면화되고 있으며 생활 처지를 요구하는 투쟁도 점차 치렬해지고 있다.

오늘 남북 조선 전체 인민 앞에 제기된 당면 과업은 금번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투적 강령을 높이 받들고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새로운 투쟁에로 더욱 용감히 일떠 서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전 민족이 굳게 뭉쳐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단결에서 그의 과거와 정치적 신념 여하가 장애로 될 수 없다.

남북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할 뿐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도 이러한 인민들의 애국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들의 반인민적 죄행으로 하여 인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지 않기 위하여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그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기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국 군대의 만행을 저지시키며 그들에 대한 일체 협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동시에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광범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적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들의 외세 의존 정책을 패적 파탄시켜야 한다.

전 민족이 단합된 이러한 거세찬 투쟁으로만 조국 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피압박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기세 충천하고 세계 정세 발전의 객관적 추세는 혁명의 편에, 조선 인민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승리는 반드시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된, 백절 불굴의 영웅적 조선 인민에게 있다.

대중 정치 교양에서의 5호담당제

최 성 근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창성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서의 5호 담당제의 경험은 전국에 파급되고 있다.

5호 담당제—이는 거주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도 일'군들이 몇 개의 세대를 고정적으로 분담하고 각 방면에 걸쳐 군중을 교양하는 대중 정치 교양 사업의 한 형식이다.

이것은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되였으며 오늘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혁명 투쟁 경험의 하나이다. 항일 빨찌산들은 유격 근거지와 유격 활동 지역에서 몇 호씩 담당하여 인민들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켰고 그들을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1958년 7월 창성군 중리에서—유급 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 사업과 경제 과업 수행 등을 지도하도록 하면 리 사업 전반을 추켜 세울 수 있다—라고 교시하셨다.

이 교시에 의거하여 창성군 중리의 매개 지도 일'군들은 5호씩 분담하고 정치 사업과 문화 교양 사업을 계통성 있게 전개함으로써 리 내의 모든 예비를 탐구 동원하여 지방 산업과 농업과 축산을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킴에 있어서 보다 성과 있게 군중들을 발동시킬 수 있었다.

그 후 5호 담당제의 경험은 창성군 내 모든 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 도입되였고 가는 곳마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낳게 되였다.

5호 담당제—이것은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서의 우리 당 군중 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때문에 현 시기 5호 담당제의 우월성과 그 의의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것을 일반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5호 담당제는 대중 정치 교양 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는 훌륭한 형식이다.

5호 담당제가 깊이 있는 대중정치 교양 사업의 형식인 리유는 그것이 대상들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의 실정을 정확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사상 사업을 혁명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효과적인 형태이라는 데 있다.

과거에는 해설 담화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한 곳에 많이 모아 놓고 대상의 형편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연설과 해설로 그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5호 담당제에서는 해설 담화 지도자들이 5호 내외의 적은 세대들을 분담하는 만큼 매 가정, 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 정도, 소질, 취미, 희망, 사상 동태를 정확히 료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상의 실정에 알맞는 생동하고 구체적인 대중 정치 교양 사업, 대상을 파악한 사상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일'군들이 많지 않은 주민들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수준의 부단한 발전 과정을 제때에 잘 알 수 있으며 일반 지식 수준과 사상 발전에 적응하게 교양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즉 전망적 계획을 가지고 순차성 있게 계통적으로 사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5호 담당제의 우월성은 대중 속에서의 정치 교양 사업을 당면한 혁명 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그것을 실속 있게 전개하는 데 있다.

지도 일'군들은 자기가 담당한 많지 않은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해설 담화를 통하여 그들의 혁명 과업 수행 정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상적 우결함을 정확히 료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혁명 과업 수행에로 대중의 사상적 동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양 방도를 강구하며 그에 력량을 집중할 수 있다.

5호 담당제는 교양 사업 일면에 그치지 않고 매개 주민들을 혁명 과업 실천에 적극 동원하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간부들은 5호 담당제를 통하여 밑에 내려 가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혁명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하도록 조직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지어 군 및 리의 전반적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들을 제때에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것은 5호 담당제가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대중 정치 교양 사업을 더욱 깊이 있게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5호 담당제는 대중 정치 교양을 폭 넓고 다방면적이며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훌륭한 형태이다.

5호 담당제는 일반 지식과 과학 지식 수준이 한급 높은 책임 일'군들과 정무원, 교원들, 지어 준비된 로동자, 협동 농장원에 이르기까지 대중 정치 사업에 보다 광범히 참가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전면적인 교양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례하면 청산리에서는 과거 해설 담화 지도자들 중 대학 졸업생이 2명에 불과하였다면 5호 담당제 이후에는 23명에 달하게 되였다.

이것은 군중들을 당 정책과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는 동시에 그들의 일반 지식과 문화 수준도 높여 주고 과학 기술도 배워 주는 등 종전보다 더욱 다방면적으로 교양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5호 담당제는 5호 내외의 적은 가호들을 뜯어 맡았기 때문에 한 지도자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식과 교양을 줄 수 있다.

군중들을 폭 넓게 교양할 수 있는 대중 사업의 이러한 형태는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에 적응된다.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현 단계의 요구는 모든 일'군들이 달라 붙어 전체 군중들을 담당하여 그들을 전면적으로 교양할 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전면적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수행의 시대적 요구는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과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 위생 지식 수준을 높일 것을 더욱더 요구한다.

5호 담당제는 바로 이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는 데 그 우월성이 있다.

5호 담당제가 폭 넓은 대중 정치 교양 사업의 훌륭한 형태라는 것은 그것이 모든 군중들을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 빠짐 없이 망라하며 이 사업에 모든 일'군들을 광범히 인입하기 때문이다.

5호 담당제는 종래 군중 교양 체계에서 가지고 있던 일부 제한성, 모든 군중을 포괄하지 못하며, 모든 간부들이 군중 교양에 동원되지 못하던 결함을 극복하는 주요한 담보로 되였다.

종전에는 리에서 조직하는 강연, 해설 사업에 리 소재지로부터 집이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늙은이, 어린애가 많은 모성은 참가하기 매우 힘들었으며 또한 작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선동원의 해설 사업도 작업이 분산되여 진행되는 사정으로 하여 적지 않은 군중들을 망라시키지 못하던 결함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5호 담당제는 유급 간부들이 직접 매 세대들을 찾아 다니면서 사상 교양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군중들을 빠짐 없이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5호 담당제에서의 정치 교양 사업은 생산 실천에서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성인으로부터 아동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 교양 사업이 가정에까지 깊이 뚫고 들어 가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5호 담당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는 고리이며 가정 교육의 성과적 발전을 위한 담보로 된다.

5호 담당제를 통하여 모든 지도 일'군들이 누구를 불문하고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 광범히 참가할 수 있게 되였으며 군중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은 더욱더 폭 넓은 것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5호 담당제는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서 모든 일'군들의 책임성을 훨씬 높일 수 있게 한다.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들이 교양 대상을 고정적으로 맡아 하는만큼 교양 사업의 책임 한계는 명백해지며 일'군들이 교양 사업에서의 정치 도덕적 자극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한다.

창성군 달산리와 중리의 경험은 일'군들이 일정한 대상들을 장기간 담당함으로써 사람들을 더욱더 목적 지향성 있고 꾸준하게 교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5호 담당제는 **거리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상으로도 군중들의 부담을 덜어 주며 그들에게 매우 편리한 정치 사업의 형식이다.**

례하면 창성군 중리 경험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리 소재지로부터 10~15리 정도로 떨어진 가호들이 적지 않으며, 작업반적으로도 4~5리 정도씩 분산되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데로부터 리 소재지에서 전체 군중이 모이는 강연을 하자면 벌써 해 떨어지기 전에 벌에서 일을 떼야 하며, 작업반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집합 시간만 적어도 1~2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5호 담당제는 가장 가까운 린근에 있는 5호 내외의 주민들이 모이는 만큼 집합 시간은 불과 10~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히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들이 매개 세대들을 찾아 다니면서 정치 교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군중들에게 더욱 편리할 것은 두말할 바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5호 담당제는 지도 일'군들이 군중들 속에 찾아 가 그들의 실정과 의식 수준에 알맞게 사상 사업을 전개하고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군중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조직 동원하고 혁명 실천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면서 그들에게 편리한 형식으로 사상 사업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상 사업에서의 군중 로선의 관철이며 청산리 정신을 구현하는 훌륭한 형태이다.

또한 이것은 비단 사상 사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다른 모든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5호 담당제를 통하여 지도 일'군들이 군중들 속에 깊이 들어 갈 수 있으며 군중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포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5호 담당제를 통하여 지도 일'군들은 군중들 속에서 배울 수 있으며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주관주의를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서 지도 일'군들은 군중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으며 당과 군중과의 통일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2

현 시기 대중 정치 교양 사업에서 5호 담당제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를 옳게 선발 배치하는 문제이다.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는 군중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알려 주며 일반 지식과 과학 기술, 문화 지식을 배워 주는 교양 선전자이며 그들의 생산과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며 이끌고 나가는 조직자이다.

때문에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는 군중들을 교양하며 령도할 수 있는 정치 실무 능력이 있고 대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런만큼 모든 책임 일'군들이 누구를 불문하고 빠짐 없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1957년 10월 11일 약수 중학교에 대한 현지 지도 과정에서 농촌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농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기술적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농촌에 있는 인테리들의 과업이다. 교원은 학생들을 데리고 배워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촌에 나가 강연 사업도 잘 하여 농민들을 잘 배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농촌 리에서는 리 당 위원장을 비롯한 리 책임 일'군들이 이 사업의 최선두에 서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인테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들을 이 사업에 적극 인입하며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 이 사업을 옳게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들은 자질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능히 군중을 이끌 수 있는 군중 공작 방법을 부단히 세련시켜야 하며 언제 어데서나 군중 앞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군중들에게 사상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옳게 이끌고 나갈 수 있다.

또한 5호 담당 해설 담화 지도자의 배치는 교양 대상의 특성과 거주 지역을 충분히 참작하여 군중과 일상적으로 부단히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을 끊임 없이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일'군들로 배치하여야 한다.

실로 지도자를 옳게 배치하는 문제는 5호 담당제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는가, 못 되는가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5호 담당제 실시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교양 대상을 옳게 설정하며 5호 담당제 운영 규모를 매개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적응하게 조직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창성군 중리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주민 분포 정형과 지도 일'군들의 수효와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시면서 이곳에서는 담당 호수의 규모를 5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교시하시였다.

많은 곳에서의 경험은 5호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가옥들이 널려져 있는 산간 지대와 세대들이 집결되여 있는 평지대, 도시 주민 구역 등에 따라 그 규모는 이러저러한 차이를 가질 수 있었다. 례하면 산간 지대인 창성군은 3~7호, 청산리에서는 8~11호의 범위 내에서 조직하는 것이 적당하였다.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해설 담화 지도자와 그의 대상의 능력과 수준에 적응하게 5호 담당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볼 때 5호 담당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제때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호 담당제를 실시한다 해서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사상 사업을 진행할 데 대한 당의 기본 방침을 등한히 하거나 또한 간부들이 해설 담화 지도자로서 몇 개의 세대를 맡았다 하여 그에만 국한하고 당원들과 간부들이 언제 어디서나 군중을 교양하여야 한다는 당의 방침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5호 담당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도 일부 락후한 사람, 이러저러한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데만 주로 힘을 돌리고 긍정적 사실을 찾아 내고 새싹을 조장 발전시키는 데 관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5호 담당제에서 가장 중요한 방도는 긍정 교양이다. 왜냐 하면 5호 담당제는 광범한 군중들을 위한 교양 방법인데 군중 교양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은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5호 담당제를 위생 문화 사업이나 이앙, 추수 사업 등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깜빠니야적 사업으로 대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창성군 달산리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곳 리당 위원회는 매주 토요일을 《5호 담당제의 날》로 설정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동시에 매개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담당한 군중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게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적지 않게 성과를 거두었다.

5호 담당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 조직들은 당적 지도와 통제를 끊임 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해설 담화 지도자들이 대중 정치 교양을 옳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도와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 정치 교양 사업을 한 단계 더욱 높이 올려 세우고 7개년 계획의 영예로운 과업 수행에 모든 군중들을 한결같이 발동시켜야 할 것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 제고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박 정 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것—이것은 방대한 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중요한 방침이다.

제한된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만 우리는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창조할 수 있었으며 짧은 기간 내에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고 수다한 현대적 도시와 문화 농촌들을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당면하게 제기된 과업과 장기적인 전망적 과업을 정확히 타산하면서 기본 투자의 방향을 옳게 규정하였으며 건설 속도를 높이고 건설비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였다.

이에 있어서 투자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소여 시기 어디에 어느만큼 자금을 투자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의 속도와 인민 경제 부문들간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자금의 회전 속도와 효과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투자 방향은 소여 시기의 정치 경제적 과업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한 그의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규정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투자 방향을 규정함에 있어서 항상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의 견지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켰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상 분리되고 리해 관계가 대립된 자본가들의 사'적 생산 하에서는 투자의 전 사회적인 효과성이란 론의조차 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개별적 자본가의 견지에서 전대된 자본과 그에 의하여 착취된 잉여 가치 간의 비률만이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회적 생산에서 지출되는 로동(체화 로동 및 산 로동)과 사회가 획득한 사용 가치 간의 호상 관계로 표시되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은 이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사회적 견지에서 경제적 효과성이 높아야 한다. 매개 개별적 기업소는 전 사회적으로 조직된 경제 체계의 유기적 구성 부분이며 그 단위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은 전체 인민 경제적인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어떤 개별적 기업소나 개별적 부문의 견지에서 기본 투자의 효과성이 낮다 하더라도 전 사회적 견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 총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선 전 인민 경제적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복종시켜 개별적 투자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모든 건설 대상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높이는 한편 일정한 시기 개별적 부문 혹은 기업소의 범위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불리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속도를 제고하며 자립 경제의 토대 축성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하여 절실한 의의를 가질 때는 그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전체 인민 경제적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기계 제작 공업을 창설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당은 그것이 전체 인민 경제 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주되는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시 일부 분자들은 《원가가 높다》느니, 《국제 분업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 유리하다》느니 하면서 당의 기계 제작 공업 창설 로선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당은 기계 제작 공업의 창설이 없이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 구축도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도 도모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기계 제작 공업의 창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실시하였다. 뜨락또르, 자동차 공업을 창설함에 있어서도 당은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들에서 뜨락또르, 자동차의 대당 원가는 비교적 높다 할지라도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그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질풍과 같이 발전하는 공업에 농촌 경리를 따라 세우고 긴절하였던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하여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선차적으로 타산하였다.

당은 새로운 기업소 건설과 새 제품 생산을 조직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정으로 당장은 발전된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그에 따라서 일시 개별적으로는 경제적 효과성이 낮다 하더라도 전체 인민 경제적 범위에서 필요한 것은 모두 발전의 견지에서 고찰하였다. 즉 지금은 효과성이 낮다 해도 공업이 발전하고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를 점차 현대화하고 개건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였다.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지방 공업 공장들의 대대적인 건설을 비롯하여 일련의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 이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항상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되는 것과 부차적인 것, 기본적인 것과 이여의 것을 정확히 구분하며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기타 고리들을 풀어 나가는 맑스-레닌주의적 사업 방법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 건설에서 기본 건설 대상의 선후차를 옳게 설정하고 중심적인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며 최단 기간 내에 조업 개시를 보장하는 우리 당의 원칙은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시킨 기본 담보이다. 중심 고리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자재, 자금, 로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건설 속도를 높이고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함으로써 새 제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었다.

건설 속도를 높임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 것은 우리 당의 공업화 정책이다.

설계를 표준화하고 부재 생산을 공업화하며 시공에서 기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건설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었으며 건설비를 극력 절약할 수 있었다.

건설에서의 공업화는 개별적 기업소, 부문의 견지에서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기본 방도로 된다.

* *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는 7개년 계획 수행에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7개년 계획 자체의 특징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7개년 계획에 예견된 기본 건설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진행된 기본 건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5개년 계획에서는 아직도 기존 기업소들의 복구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였다면 7개년 계획은 대규모적인 신설, 확장, 개건이 기본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매개 투자 대상을 계획하며 설계, 시공함에 있어서 더욱 더 과학적인 기술 경제적 타산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진행될 기본 건설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 총체적 규모가 지난 7년 간에 비하여 2.3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건설 대상들의 규모가 비할 바 없이 큰 점이다. 서두수 수력 발전소, 김책 제철소, 박천 지구 대화학 공장 등과 같이 1개 대상의 총 투자 규모가 1949년 1년 간의 우리 나라 총 기본 건설 자금에 해당하는 대규모적인 대상을 비롯하여 수다한 세계 굴지의 현대적 대규모 기업소 건설이 진행될 것이다.

기본 투자의 규모의 방대성은 그 생산 기술 공정의 선택, 시공 공정의 설계, 조업 개시 순차의 결정 등 경제적 효과성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다음으로 7개년 계획 기간 기본 투자의 기본 내용이 바로 새 기술의 도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이것은 바로 7개년 계획이 기술 혁명의 계획이라는 사정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기계 제작 공업 및 금속 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본 투자의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7개년 계획의 기본 건설 총 투자 중에서 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7년 간에 비하여 훨씬 제고되고 있는 것은 이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종 다양한 설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제작 공업의 여러 부문들 특히

는 자동화 기구 계측기 공업, 베아링 공업, 케블 공업, 전자관 공업 등 일련의 새 건설을 선행시켜야 하며 철재 분배에서는 설비 생산용 강재와 건설 조립용 강재의 균형을 새로운 각도에서 타산하여야 한다.

당은 지난 시기의 경험과 현실적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7개년 계획 기간 공업 생산 장성 속도와 기본 건설 투자 규모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를 약 1:0.8로 설정하였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보통 이 호상 관계가 지금까지는 1:1로 되였으며 1965년까지의 전망 계획들에서도 1:1이거나 건설 규모 장성 속도가 공업 생산 장성 속도에 비하여 약간 앞서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5개년 계획 기간에도 공업 생산 장성 속도가 건설 규모의 장성 속도에 비하여 앞섰으며 새 건설이 대대적으로 예견되는 7개년 계획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써 보다 높은 생산 장성을 달성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문제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또 그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5개년 계획 기간에 방대한 국가 자금과 비교적 긴 건설 기간을 요하는 중공업을 건설함에 있어서 인민 생활과 밀접히 결부된 부문의 발전에 중점을 둠으로써 제한된 자금으로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과업과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해결하였으며 투자의 효과성을 높였다.

당은 우리 인민 경제 발전의 현재와 장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7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화의 철저한 실현을 위한 중공업 기지의 대대적인 확장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개년 계획 통제 수'자에는 공업과 농업 생산 장성 속도가 1: 0.75로, 생산 수단 생산의 장성 속도는 3.2배, 소비재 생산 장성 속도는 3.1배로, 축적 폰드와 소비 폰드의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는 약 1: 0.85로 규정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기간에 비하여 7개년 계획 기간에 이들의 장성 속도가 현저히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 경제 부문들 간, 환절들 간의 장성 속도의 이와 같은 접근은 이미 축성된 자립적 경제 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투쟁과 신건설을 밀접히 배합시키며 또한 새로운 투자에서 방향과 중심 고리를 정확히 규정하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제 4차 당 대회는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7개년 계획의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심 과업을 명백히 규정한 당의 방침은

경제 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 고리를 정확히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인민 경제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령도 방법의 또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이것은 이미 조성된 잠재력을 가장 훌륭히 동원 리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지출로 당면한 과업 뿐만 아니라 전망적인 과업까지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7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업 특히 중공업의 기본 지표인 강철 생산량만 하더라도 불과 2년 간에 1.7배 이상이나 제고되였다. 그런데 흑색 금속 부문 투자는 2년 간에 7개년 계획의 통제 수'자에 예견된 것보다 훨씬 절약되였다.

이것은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면 적은 자금으로 훨씬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 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최근 1∼2년 간에 우리의 중공업 기지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나 아직도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설비들을 더욱 보강하며 설비의 점검 보수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며 필요한 부대 설비들과 부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들을 생산에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생산 공정을 더욱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기 위하여서는 기존 생산 기술 공정을 정비 강화하는 데 계속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전후 7년 간에 공업 생산을 년평균 39% 특히는 생산 수단 생산은 년평균 46.6%라는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본 생산 공정들만 먼저 꾸리고 우선 생산을 보장하여야 하였으며, 부차적인 공정, 보조 설비들을 완비하기 위하여 중공업 기업소들의 생산 조업 개시 기일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다.

오늘 중공업의 골간에 원료의 예비 처리 및 정선 공정, 제품 검사 공정, 완성 공정 등과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기술 관리에 필요한 측정 감시 조절 수단 등을 보충 완비한다면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고하게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는 예비가 허다히 나올 것이다.

또한 부산물, 폐설물 등을 회수 처리하며 그를 리용하는 부대 공정을 정비하는 것도 커다란 예비로 될 것이다.

야금 공장이나 기계 공장에서 파철장을 건설하며 지철의 파쇄 설비, 절삭밥의 압착 설비들을 설치하여 공장에서 산생하는 파철 원천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한다면 철광석이나 수입 파스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막대한 제강 원료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한다. 파철을 사용하면 선철을 사용할 때보다 제강 시간은 단축되고 야금로들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적은 투자로 강철 생산을 급속히 제고시킬 수 있다.

부산물이나 페설물을 회수 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 골간을 꾸리는 시기에 이를 위한 부대 건설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었다.

오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부산물이나 페설물의 량도 증가되였으며 또한 우리의 인민 경제가 다양하여짐에 따라 부산물 페설물을 리용한 공업 제품의 수요도 긴급하여졌다. 이러한 보조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기본 생산을 정상화하고 렴가한 제품을 얻어 내는 것은 우리 중공업을 보충 완비하는 중요한 방도로 될 것이다.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일 데 대한 과업은 생산 공정 간의 능력 발란스를 정비 보충하기 위한 투자를 요구한다.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은 무궁무진한 창발력을 발휘하여 온갖 공칭 능력과 기술 신비주의를 쓸어 버리고 가는 곳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 공정 간 능력에서 차이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일부 공정 설비들은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례를 들면 강재 생산에서 기본 공정인 압연기의 능력은 200%로 제고되였으나 그 소재를 가열하는 가열로의 능력은 130%, 제품 절단 능력은 150%밖에 제고되지 못한다면 결국 강재 생산은 130%밖에 제고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금속, 기계, 화학, 방직 공장 등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리를 찾아 내며 그에 투자하는 것은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 중공업의 골간적 생산 능력은 튼튼히 꾸려졌으며 기본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 수준에 있어서도 발전된 공업 국가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품종과 규격들이 다양하지 못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긴절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인민 경제의 규모가 아직 작았을 때에는 일부 품종과 규격품들은 그 소비량도 극히 적었다. 그러나 인민 경제의 규모가 방대하여졌으며 요구되는 품종 규격도 다양하여짐에 따라 부속품이나 보조 자재, 시약, 계기류 등을 다량적으로 생산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긴절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그것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기술 력량과 제반 물질적 조건도 조성되였다.

이미 형성된 골간에 일부 설비를 보충함으로써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며 제품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은 적은 투자로써 인민 경제 발전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이와 같이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것은 적은 자금으로 일부 공정을 빠른 시일 내에 보충 완비함으로써 많은 추가적인 생산을 내며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 ✻

투자의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며 중심 고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개별적 건설 대상의 건설 조립 속도를 제고하는 것은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 당 방침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된다.

지난 시기 건설의 공업화 정책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 건설에서는 조립식 비중이 훨씬 제고되였으며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가 창조되였다.

이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조립식 건설을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워 건설장을 부재의 조립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만 건설 속도를 더욱 높이고 건설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며 7개년 계획의 방대한 기본 건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7개년 계획 기간 산업 건설의 조립화 수준을 새로운 단계에 올려 세우는 문제가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며 7개년 계획의 하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산업 건설에서는 부재의 조립화 비중을 높이는 사업과 함께 생산 설비 및 장치들의 조립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건설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발전소, 금속 공장, 화학 공장, 세멘트 공장과 같은 중공업 기업소 건설은 수천 톤, 수만 톤 심지어 김 책 제철소와 같이 근 20만 톤에 달하는 설비들을 설치 조립할 것을 요구한다. 총체적 설비 중량이 클 뿐더러 단위 설비 중량이 또한 수백 톤, 수천 톤에 달하는 설비들과 그 용량이 수천 수만 립방메터에 달하는 대용량 제관품들이 수다하다.

이와 같은 공장 건설에서 설비들의 현장 조립 시간을 단축하고 그 대부분을 설치 작업만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건설 속도를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이다.

건설 현장에서 조립 시간이 수개월씩 요하는 발전기, 변압기, 보일라 기타 대형 중량 설비들과 대용량 로, 탑 등의 현장 조립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서는 그 설비들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대형물로 조립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하면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다.

과거에 수개월씩 현장에서 재조립 작업하던 10만 키로볼트 암페아 대용량 변압기를 오늘 전기 공장에서 완전 조립하여 수송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는 단지 설치하는 것으로써 공사 기일을 단축하며 변압기의 수명을 연장케 하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수송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설비의 설계를 혁신하며 시공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는 것은 산업 건설의 공업화 수준을 제고하고 건설 속도를 제고하는 기본 방도이다.

우리는 기본 건설의 계획화 수준을 제고하며 건설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 정책을 관철시키며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위대한 전망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후방 공급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부단히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다.

이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후방 공급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후방 공급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당과 국가가 인민 생활을 위하여 지어 주는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더욱 원만히, 더욱 성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깊은 관심과 커다란 배려를 돌려 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은 더욱 개선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생활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쓰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되였다.

우리 당은 최근 2~3년 내에 인민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할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의식주 문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질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후방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후방 공급 사업을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사회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고 생산력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후방 공급을 위한 모든 기구들과 수단들이 보장되여 있으며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당의 방침이 명확히 서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후방 공급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결국 지도 일'군들의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 그들의 창발적 열의와 조직 사업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창성군의 경험은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창성군은 자연 경제적 조건이 그 어느 곳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의 원천들을 백방으로 탐구 동원함으로써 후방 공급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고 인민 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 오게 하였다.

당 위원회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은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결정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을 실생활에 구현할 수 있다.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모든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혁명적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후방 공급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서 그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적 관점 여하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근로하는 사람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제도 하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는 없으며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혁명 동지이며 혁명 전선에서 같이 싸우는 전사이다.

혁명 사업은 지도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전선에서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되고 있는 근로 대중의 자각적 열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우기 우리 근로자들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다.

지도 일'군들이 나라의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철저히 복무하며 그들을 혁명 동지로서 존중하는 사상 관점과 작풍을 소유함이 없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볼 수 없으며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줄 수 없다.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돌리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모두가 다 낡은 부르죠아 사상의 표현이다. 부르죠아지들은 로동자들의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들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 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관계가 청산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잘 돌리지 않는 태도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이러한 일'군들의 머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부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함이 없이는 후방 공급 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우선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인민성과 혁명적 군중 관점으로 무장하도록 자체 수양을 강화하며 낡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

당 위원회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잘 돌리지 않는 낡은 사상 관점을 극복 청산하기 위한 당내 비판과 호상 비판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지휘관의 첫째 임무는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잘 보장해 주는》(김 일성 선집, 제 6권, 469페지) 데 있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하부 일'군들과 군중들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곤난해 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도

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 일'군들이 근로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단 결의한 것은 이악하게 달라 붙어 끝까지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지도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 잡고 인민 대중에 대한 철저한 복무와 충실성, 그리고 혁명 동지를 무한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상과 작풍으로 그들을 철저히 무장시킬 수 있다.

후방 공급 사업은 후방 일'군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관, 기업소 책임 일'군들의 첫째 가는 사업으로서 생산과 밀접히 결부된 우리 당 정치 사업의 중요 부문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이미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만일 이것은 후방 사업이나 후방 일'군들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바로 로동자들의 생활 향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잘 하고 못하는 데 생산의 성과 여부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어찌 정치 사업이 아니겠는가?》(선집, 제 6권, 468~469페지).

모든 지도 일'군들이 후방 공급 사업을 자기의 첫째 사업으로서 튼튼히 틀어 쥐고 그것을 옳게 보장할 때야만 생산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생산에서 그들의 의식성을 높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그들을 자각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사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후방 공급 사업이 결합되여야 한다.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하며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에게 맛 있고 다종 다양한 부식물들을 공급해 주고 깨끗하게 꾸려진 합숙과 아담하고 쓸모 있는 문화 주택에서 살게 하며 탁아소, 유치원, 목욕탕, 리발소, 세탁소 등 봉사 시설들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질수록 근로자들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생산의 장성, 그리고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온갖 창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후방 공급 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을 장성시키며 근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에로, 혁명 과업 수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정치 사업으로 된다.

당 위원회들은 후방 공급 사업이 생산 장성에서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 쥐며 그 집행 대책을 면밀히 짜고 들어 그 실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살피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도 일'군들이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력 갱생의 원칙에 확고히 서서 자체의 온갖 내부 예비와 가능성들을 남김 없이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우리 지도 일'군들에게 있어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없다고 하면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당과 국가가 지어 주는 조건들과 자체 내부의 원천들을 동원하기 위한 창의 창발성을 발휘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후방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당 위원회들은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조직하고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온갖 창발성을 다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서는 대안의 체계에 의하여 새로 확립된 후방 공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이 사업을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이다.

후방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내 후방 일'군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후방 일'군이라고 해서 부차시하며 선발 배치에서 당적 원칙을 위반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당성 있고 실무에 능숙하며 실지 사업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그리고 인민성과 계급성이 강한 일'군들로 후방 일'군 대렬을 보충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 속에서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사상 교양과 당성 단련을 위한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항상 인민의 리익과 행복에 대한 철저한 복무와 충실성으로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하게 될 것이다.

당 위원회들과 모든 지도 일'군들은 창성군의 경험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창성이나 벽동 사람들이 산'비탈의 척박한 땅을 다루면서도 다 부유 중농의 수준에 올라 설 수 있으니 다른 데서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김 일성,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우리의 모든 지도 일'군들이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체득하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자체 내의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며 후방 공급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한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답 학습

가격 제정의 원칙

오늘 우리 나라 가격 체계에는 여러 종류의 가격들이 있다. 즉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수매 가격, 운임 및 료금이 있으며 도매 가격에는 또한 기업소 도매 가격과 산업 도매 가격이 있다.

기업소 도매 가격은 생산물의 원가와 기업소의 리윤으로 구성되며, 산업 도매 가격은 기업소 도매 가격과 거래 수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소매 가격은 산업 도매 가격과 상업 부과금으로 형성된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물의 원가+기업소 리윤=기업소 도매 가격,
기업소 도매 가격+거래 수입금=산업 도매 가격,
산업 도매 가격+상업 부과금=국정 소매 가격.

가격 체계를 옳게 리용하는 것은 인민 경제의 급속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옳게 제정된 가격은 우선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고 일'군들의 물질적 관심성과 생산비의 절약을 자극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립 채산제 기업소는 기업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화폐 형태로 계산 대비하며, 자기의 경영 활동에서 일련의 자립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생산 경영 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로부터 가격이 정확하게 제정되여 있을 때 생산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하고 철저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는 등으로 원가를 낮춘다면 그렇지 못한 기업소보다 많은 수익성을 보장 받게 된다.

기업소는 그의 일부를 생산 확대와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향상에 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기업소는 이것을 일'군들의 물질적 형편과 문화 후생 조건의 개선에 리용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과 선진적 생산 기준의 부단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더욱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격은 기업소의 경영 활동을 개선하며 특히는 모든 생산 기업소들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러므로 가격을 옳게 제정하며 그의 적용 원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면 가격 제정과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가?

그것은 가격을 체계적으로 인하하는 원칙, 동일 제품에 대하여는 유일 가격을 제정하는 원칙, 생산물의 각이한 그루빠들 간의 가격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하는 원칙 등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가격 제정의 기본 원칙은 가격을 체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가격의 체계적이며 부단한 인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전후에만 하여도 7차에 걸쳐 상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은 물론 근로 농민들까지 많은 혜택을 입게 하였다.

가격의 인하는 공업 제품에 대한 대중적 수요를 증대시키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장성시킨다.

소매 가격의 인하는 매개 기업소에서 인민 경제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며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 지출을 부단히 저하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가격 제정의 중요한 원칙은 동일 생산물에 대하여 유일 가격을 제정하며 제품의 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제정하는 것이다.

가격은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격은 그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여 제정하므로 동일한 종류의 생산물들의 가격 수준은 개별적 지출에 상관 없이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격의 도움에 의하여 우리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는 물론 그와 련관된 다른 기업소들의 사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관철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화폐 임금에 상응한 소비품을 보장 받게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도매 가격은 유일 가격으로 제정하며, 지방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도매 가격은 도 범위 내에서 유일 가격으로 제정한다.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도매 가격 수준에서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기술적 장비 정도와 일'군들의 기술 수준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방 공업 공장들의 기술 장비를 부단히 개선하고 일'군들의 기술 수준을 급속히 제고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소매 가격은 중앙 및 지방 공업에서 생산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 생산에 지출된 원가 수준에는 관계 없이 유일 가격으로 제정하고 있다.

끝으로 가격 제정의 중요한 원칙은 매 시기의 구체적인 실정에 부합되게 매개 제품에 대한 가격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다.

각이한 제품의 가격들의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질 제고, 품종 확대와 생산 장성을 자극하며, 특히 지방에 풍부한 대용 자재를 광범히 리용하며 부족하거나 귀중한 자재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례컨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원목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원목에 대한 산업 도매 가격과 철근 콩크리트로 만든 천주, 지주 및 전재, 부재 기타 등 대용 자재의 도매 가격 간에 옳은 호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원목 소비를 극력 절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목재를 소비하는 기업소들에서 원목을 적게 쓰고 대용 자재를 리용하는 경우에 원가는 응당 더 낮아지고 높은 수익성을 보장 받게 된다.

그러면 현 시기 가격 제정 사업과 그 적용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매개 기업소들에서는 우리 당의 요구를 옳게 관철함으로써 생산물의 질이 급속히 제고되고 있으며 새롭고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우선 가격을 제정하는 기관들에서 가격 제정의 원칙에 엄격히 립각하여 새 제품의 가격을 신속 정확히 제정하는 것이다.

생산된 제품의 가격을 제때에 제정 공포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으며 생산 기업소들에서의 류동 자금의 회전을 촉진시킬 수 없다.

가격 제정에서의 신속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개 기업소들에서 생산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격 제정 신청안

을 옳게 작성하여 제정된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상품 류통 사업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가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가격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만약 정확히 제정된 가격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인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가격은 경리 형태에 따라, 그 제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각이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단위들에서 해당한 국정 가격표와 가격 적용의 일반적 원칙에 엄격히 준하여 결제 계산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다.

실례로 어떤 공급자 기업소가 해당한 국정 가격표에 의하여 결제를 진행할 대신에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면 그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소는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도 가격적 요인에 의하여 원가 저하를 가져 오지 못하며 지어 결손까지 보게 되는 것이다.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소가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시키며 절약 투쟁을 강화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익성 규모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수익성 규모는 생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고 생산하기 힘든 종류의 제품에 한하여 약간 높은 소득을 보장 받게 하며 전체 집단이 생산 확대에 관심을 높이도록 설정하여야 한다(수익성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중앙 기업소 제품은 원가의 3~5%, 지방 기업소 제품은 3~6%, 생산 협동 조합 제품은 3~8%이다). 이와 같이 개별 제품에서 특별한 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많은 수익성을 조성하거나 기업소 원가 손실을 보게 하는 현상을 근절하며, 적당한 수익성을 설정하는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경제 지도 일'군들은 인민 경제 모든 단위들에서 가격 제정의 제 요구에 립각하여 그를 목적 의식적으로 리용하며 제정된 가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절 률 린

근 로 자　제 19호 (루계 212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1962년 11월 20일　인 쇄• 1962년 11월 17일

ㄱ—230732　　값 40전